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우리 전통의 맛과 흥 55 안년 우리말	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10 좋은 아침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5 인간극장 스페셜 <에티오피아 신부 끌기단 1~3부>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MBC 정오뉴스 20 2015 아름다운 동행 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횡단 올드보이가 간다
2		00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SBS 12 뉴스 50 2015 프리미어 12 예선 3차전 <대한민국:베네수엘라>
3	00 이언경의 직면직설	40 야생일기(재) 55 튜튼생활채널	05 후트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채상 위키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횡단 올드보이가 간다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 뼘의 기억, 첫발(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키친 40 동물의 세계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위기탈출 남병원(재)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변신자동차 포뮬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00 날씨와 생활 5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구원의 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비타민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디큐1 55 숨터	00 수목 드라마 <장사의 신-객주 2015>	00 드라마 스페셜 <마을-이치아라의 비밀>
11	00 구원의 밤(재)	00 KBS 뉴스라인 40 유럽인이 사랑한 한국문화. 그 130년 이야기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2015 ABU TV SONG 페스티벌	4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머의 창의력 팽팡	14:50 뽀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리자어요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8:45 스포랜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6:10 한국 음악 기행(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티스(재)	11:10 디큐 오늘	15:45 꼬마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5:50 크레머의 창의력 팽팡(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이(재)	20:40 디큐오늘
08:00 당동명 유치원 1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명 유치원 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중국 간쑤성, 문명의 길을 걷다>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7:45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08:20 당동명 유치원 2	13:40 사이먼 지구인 자격평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	<가을 추풍령>
08:30 두다디콩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중 슈퍼왕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0 당동명 유치원 3	14:00 곤	18:2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2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45 방귀대장 뽕이	14:30 캐니벌	18:25 내 친구 아서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EBS플러스1

00:00 올림픽포스 <국어II-일파개념>	12:15 올림픽포스 <국어II-일파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통과 통계>	14:00 올림픽포스 <국어II-일파개념>
02:30 " <기하와 벡터>	14:50 " <화통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픽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8:10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지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뉴탐스런 <생활과 윤리>	20:50 배움플러스
09:10 뉴탐스런 평가문제집 <과학>	21:50 특별생방송
10:10 올림픽포스 평가문제집 <수학II>	2016학년도 대수능 경향분석
11:00 뉴탐스런 <지구과학I>	22:30 박범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무역영어 1급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기말학업성취도 평가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문제풀이 <과학 3-2>
08:30 EPR 정보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과학 4-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20 " <과학 5-2>
09:10 TV중학 <국어(1)(2)>	16:50 " <과학 6-2>
09:50 " <영어I>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10:30 " <도덕 2>	" <전과목 6-1>
11:10 " <국어(3)(4)>	18:00 TV중학 <수학3(하)>
11:50 " <영어 2>	18:40 " <영어 3>
12:30 EBS 특강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3:00 데일리 서술형 수학	20:00 EBS 인문학특강
13:10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20:50 EBS 기획시리즈
" <사회 1-2>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사회 2-2>	22:00 중간, 기말시험 대비 문제풀이
14:30 " <역사 1-2>	" <역사2-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음 10월 1일 壬辰)

子	48년생 진행속도를 높여도 무방하다. 60년생 일부러 시간을 내더라도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 놓음이 합당할 것이다. 72년생 어떠한 형국인지 일관성 있게 대하자. 84년생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잘처리의 문제다. 행운의 숫자 : 13, 52
丑	49년생 누적돼 왔던 것이 모양채를 갖추게 되리라. 61년생 이루어지기는 하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73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책이니 강력히 추진해야겠다. 85년생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는 느긋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26
寅	38년생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 필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50년생 반복될 뿐이다. 62년생 예방만이 안전을 도모하리라. 74년생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으리라. 86년생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35, 66
卯	39년생 쉽게 속을 수 있다. 51년생 아주 중요한 문제다. 63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75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다. 87년생 참고 기다린다면 늦게나마 취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7, 76
辰	40년생 새롭게 조령해 볼 필요가 있다. 52년생 취약한 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야만 한다. 64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76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감안한 다음에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7, 69
巳	41년생 조그만 허점도 노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53년생 대체로 해소되겠지만 부분적인 결점은 여전히있다. 65년생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숙단한다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96

午	42년생 진정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54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질 정조이니 힘을 내어 마무리를 잘하자. 66년생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78년생 드디어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으니라. 행운의 숫자 : 80, 02
未	43년생 형세에 맞는 소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55년생 절제한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느니라. 67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79년생 자발적이란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9, 46
申	44년생 쌍방의 첨예한 대립으로 불꽃이 튀겠다. 56년생 경색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집하는 구도가 역력하다. 68년생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80년생 찬란한 영광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85, 87
酉	45년생 요령을 배리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57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69년생 예감이 잘 맞아야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81년생 총족시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진로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90, 92
戌	4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 58년생 한 번 결정된 일이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무방하다. 70년생 시련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82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행운의 숫자 : 60, 22
亥	47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니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59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71년생 집착하는 것도 자기 손실이다. 83년생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8,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

“몸짱 연기...분장 힘들지만 매력있어요”



‘오 마이 비너스’ 강주은 역 신민아, 소지섭과 호흡

과거 ‘얼짱’이었는데 현재 ‘얼짱’이 된 여자의 이야기가 끝나니, 이번엔 과거 ‘몸짱’이었는데 지금은 ‘몸짱’이 된 여자의 이야기가 찾아온다. 출발부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류작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인공이 매력 넘치고 흐르는 소지섭과 신민아다. 이렇게 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는 면죄부가 주어질까.

KBS 2TV가 ‘발칙하게 고고’ 후속으로 16일 첫선을 보이는 새 수목극 ‘오 마이 비너스’는 ‘헬스 힐링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한다.

고대에는 풍만한 몸매의 비너스가 각광 받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비너스는 ‘비만’으로 손가락질 받기 십상이다. 드라마는 2015년 바로 그런 고대 비너스의 몸매가 돼버린 여자 변호사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자 헬스 트레이너의 비밀 다이어트 도전기를 그린다.

MBC TV ‘그녀는 예뻐다’에서 황정음이 연기했던 망가져버린 외모의 여주인공이 이번에는 신민아의 몫이다. 신민아가 연기하는 강주은은 로펌 2년차 변호사로 170cm-77kg 덩치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도 과거에는 48kg의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타고난 미모로 남성들을 쓰러지게 했던 강주은은 미모로 승부하는 대신 머리로 승부해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어느날 보니 ‘몸짱’이 돼버렸다.

그리고 15년을 한결같이 곁에서 지켜주던 연인이 있어 별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날 연인이 떠나버리자 강주은은 ‘절제정령의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나선다.

11일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신민아는 “강주은 캐릭터가 너무 좋았다. 특수분장을 하고 살이 찌는 모습임에도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보다 어른스러운 이야기일 것 같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소지섭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조련해온 트레이너 김영호를 맡았다. 전형적인 ‘까도 남’(까칠한 도시 남자)이지만 속마음은 어린 캐릭터다. 그런데 그에게는 배일에 감춰진 의뢰받은 가족의 후계자라는 숨겨진 신분도 있다. 김영호는 어느날 자신의 약점을 잡고 나타난 강주은의 당돌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그의 트레이너가 되고만다.

소지섭은 “설정이나 캐릭터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일 수 있지만 안에 담겨진 내용은 새롭고, 따뜻하고, 건강하다”며 “보시는 내내 힐링할 수 있는 드라마여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정겨운 강주은의 15년 연인 임우식을 연기하고, 강주은과는 정반대로 과거에는 120kg의 거구였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날씬해진 변호사 오수진은 유인영이 맡는다. 또 성훈, 헨리, 김정태, 진경, 조은지 등도 출연한다.



“부정적 인물이라 처음엔 선뜻 내키지 않았죠”

영화 ‘내부자들’ 이강희 역 백윤식

영화 ‘내부자들’에서 눈썹간으로 나오는 백윤식이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자신이 맡은 배역이 부정적인 인물이라서 선뜻 출연이 내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화 ‘내부자들’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정치인과 재벌, 언론, 조폭, 검찰 등 우리 사회의 ‘내부자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불림에서 암투를 벌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백윤식은 정치인과 재벌, 조폭 등을 연거푸 ‘큰 판’을 찌는 눈썹간 ‘이강희’역을 연기했다. 그는 “생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이미지가 있고 그동안 해온 전작들의 캐릭터와도 많이 상반되는 역할이라서 감독과 첫 미팅에서 ‘좀 그렇다’고 말했다”고 캐스팅 회화를 소개했다.

백윤식은 “감독이 이강희 역은 백윤식이라는 배우가 소화시켜줘야 하는 역할이라고 명쾌하게 말하더라. 이강희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강한 힘을 갖고 현실을 풀어가는 인물이라서 배우로서 한번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출연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눈썹간이라는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제 방식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백윤식이 여당 대통령 후보(이경영)와 함께 별장 술집에서 다 벗은 뒷모습을 보이며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연기를 한다.

백윤식은 “이경영은 대통령 후보이고 저는 ‘김메이커’인데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파티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감독에게 이 장면을 꼭 영화에 넣어달라

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은 원작에서도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 “권력자들이 수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장면”이라는 것이 윤작가의 설명이다.

이강희의 수하로 나오는 조폭 ‘안상구’역을 맡았던 이병헌은 백윤식의 연기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리액션을 보여줘 같이 호흡을 맞추기 힘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백윤식은 이에 대해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배역을 연구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본인이 생각해 둔 틀 안에 없던 리액션을 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웃으며 해명했다.

그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유형이 천대만상이지만, 캐릭터의 성격을 적시 적소로 캐치해서 표현해주는 것이 배우의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에 대해 “현장에서 연기하는 거 보면 진짜 스파크가 일어난다”며 “잘 표현해주니 같이 상송세를 탄다”고 호평했다.

영화에서 이강희는 안상구를 ‘여우 같은 곰’이라고 표현한다. 여우같이 꾀를 쓰려고 하나 곰같이 우직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백윤식은 자신이 여우보다는 곰에 가깝다고 자평했다. 같이 호흡한 이병헌, 조승우 역시 ‘곰과’라고 했다.

“둘 다 남자들의 기본성이라고 할까, 우직스럽다. 이병헌씨는 의외로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 다소곳하다.”

앞으로도 악역을 다할 것인지 정의로은 역할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라며 ‘얼린’ 답변을 했다. /연합뉴스